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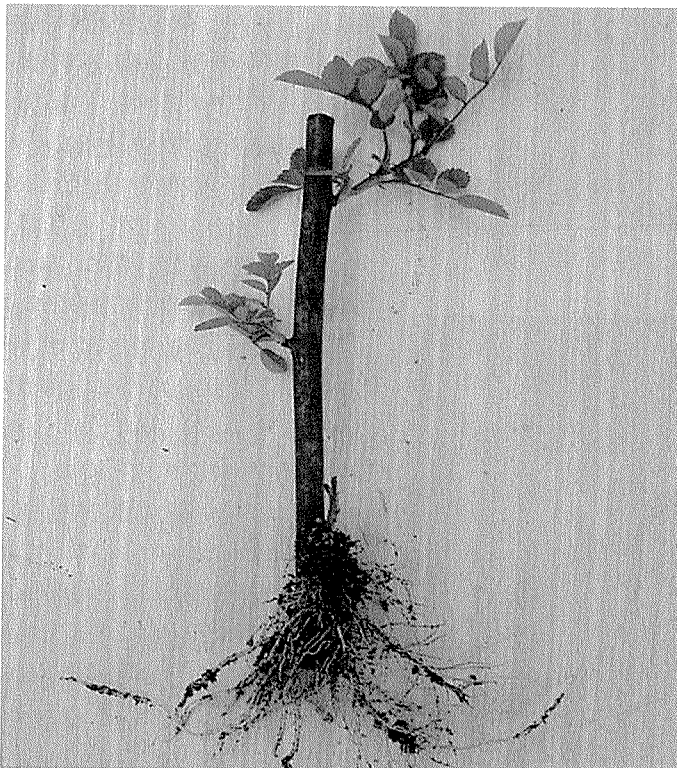
밀원식물 찔레나무

(학명 : *Rosa multiflora*, 장미과)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찔레나무는 한국적인 나무이고, 피는 꽃 찔레꽃은 참으로 한국적인 꽃이라고 할수있다. 찔레나무를 개량한 장미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과 비교하면 순백의 꽃과 은은한 향기, 아담한 나무형태는 한국적이라는 말에 더욱 실감이 날 것이다.

어느 TV 연속극 중에서 “찔레꽃”이라는 연속극이 있었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는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씨가 부른 “찔레꽃”이라는 노래 가사도 좋다. 한국적 얼굴을 가진 장사익 씨가 한복



찔레나무는 삼목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을 입고 부르는 이 노래를 듣노라면 한국적 대표 정서라는 ‘한’ ‘슬픔’ 같은 감정이 짙게 밀려오기도 한다. 이와같이 찔레꽃이 가진 향기와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 듯하다.

찔레나무는 우리나라 각 처의 산야에 자라는 낙엽관목이다. 장미아과에 속하며 장미목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꽃잎이 5개며, 수술의 수가 많고, 수술줄타리집이 발달되어 있다. 소지는 녹색이지만 겨울에는 붉게 되며 가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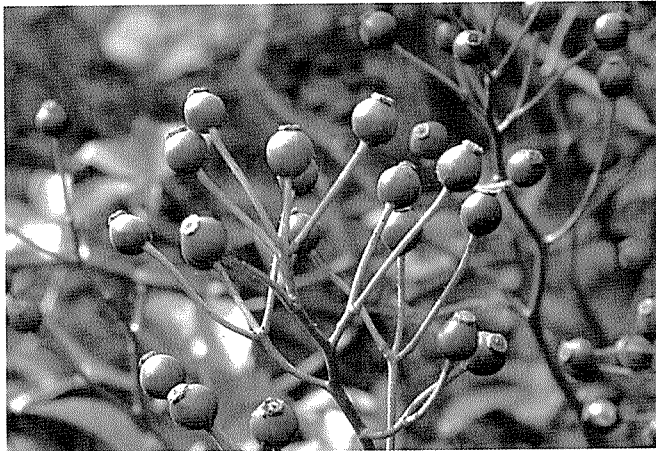
잎은 호생하고 5~9개의 소엽으로 구성된 우상 복엽



꽃의 근경. 수술이 많으며 화분도 많다. 노랗게 보이는 것이 새로 핀 꽃이고, 갈색으로 변한 것은 벌이 화분을 가져간 것이다.



꽃이 필 무렵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찔레꽃



찔레나무 열매

이다. 소엽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양끝이 뾰족하고 길이 2~3cm로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다. 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에는 털이 있다. 탁엽은 빗살 같이 갈라져 있으며, 하반기가 엽병과 마주쳐 있다.

5~6월에 흰색 꽃이 가지 끝에 원추화서로 피며, 직경은 2cm 정도다. 학명중의 multi는 많다는 뜻이고, flora는 flower 즉, 꽃이라는 뜻이다. 사실 찔레나무는 나무전체를 꽃으로 덮힐만큼 많이 핀다. 열매는 9~10월에 붉게 익어 다음 해까지 달려있으며 새들이 먹어서 씨가 멀리까지 퍼트려 지게 된다.

맹아지의 새 순은 먹을 수 있다.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에 직경 0.5cm 정도에 길이 30cm 되는 새 순을 만나게 되는 날은 운이 꽤 좋은 것이다. 연한 순은 껍질체로 먹고, 익세 지면 껍질을 벗겨내고 먹었다. 요즘은 찔레 순을 먹는 사람이 적어 이런 순을 흔히 보는데, 가끔 먹어보면 옛날 맛이 나지 않는 듯하다.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이라는 가요 가사가 있으나, 찔레꽃은 붉게 피지 않는다. 붉은 꽃이 피며 가시가 있는 해당화를 뜻하는 듯하다.

번식은 가을에 열매를 따서 과육을 제거한 후 직파하거나, 노천매장을 한 후 뿌린다. 2~3월, 6월, 9~10월에 가지삼목을 하면 발근이 잘 된다.

찔레나무는 꿀도 화분도 많다. 그러나 찔레나무가 지금까지 주 밀원식물로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아까시나무와 개화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까시나무가 없는 지역, 아까시나무를 심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이 나무가 좋은 밀원식물이 될 것이 틀림없다.